

지난 20년간의 앙코르유적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도쿄선언, 파리선언, 앙코르선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

International cooperations for the Safeguarding on Angkor during two decades

- by analysis of Tokyo, Paris and Angkor Declarations -

박 동 희*

PARK, Dong-Hee

(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

신 보 램

SHIN, Bo-Ram

(한국국제협력단 캄보디아 현지단원)

Abstrac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collaborated for the preservation of Angkor site in the last twenty years. This case which is the heritage conservation through cooperation is an exemplary instance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warring nations. For this study, we analyze each of declarations that is adopted through three intergovernmental conferences for the preservation of Angkor and study how the policies of the conservation work.

Tokyo Declaration at 1993 is included a pledge of the cooperation from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and an emergency measure and an advice of the policy for conservation on Angkor.

Paris Declaration at 2003 is mentioned that the emergency measure for last ten years is effective for conservation of Angkor and emphasized the necessity of practical use of heritage lik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thical sightseeing.

Angkor Declaration at 2013 assures exertions of last 20 years and convinces that all of activities about Angkor is a commendable precedent to another World Heritages in danger. And it is mentioned a practical use of heritage which is more crucial and new conservation of Angkor.

주제어 : 앙코르, 보호, 보존, 세계유산, 국제협력

Keywords: Angkor, Preservation, Conservation, Khmer, International Cooperati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1970~80년대, 앙코르유적은 캄보디아 내정의 불안으로 인한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었다. 도굴 및 약탈로부터 무방비상태로 놓여있었으며, 자연의 침식 등으로 많은 부분에서 붕괴와 같은 심각한 손상이 발

생하고 있었다.

내정이 안정되자, 캄보디아 정부는 국제사회에 앙코르유적의 구제를 요청했다.¹⁾ 이에 UNESCO는 국제 캠페인 ‘Save Angkor’를 발족시켰으며, 국제사회는 앙코르유적을 보호²⁾하기 위해 협력하기 시작했

1) *Safeguarding and Development of Angkor*, UNESCO, 1993, p.46

2) 본 고에서는 “보호”와 “보존”의 의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보호”는 유적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 정책적, 철학적인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보존”은 “보호”에 비해 구체적인 의미로, 유

* Corresponding Author : pluto2c@live.com

다. 이러한 상황에서 앙코르유적의 구제를 위한 세 번의 범정부간 국제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각 회의에서는 세 개의 선언(1993년의 도쿄선언, 2003년의 파리선언, 2013년의 앙코르 선언)이 채택되었다.

각 선언문에는 지난 20년간 앙코르유적을 구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고뇌와 노력뿐만 아니라, 지난 세기동안 발전해 온 문화유산을 보호하려는 국제적 철학적, 이론적 논의가 담겨있다.

1-2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20년간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에서 이루어진 유적 보호 활동을 이해하고, 국제적 인식과 흐름 속에서 앙코르유적 보호가 가지는 의의를 고찰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앙코르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개최된 세 번의 범정부간 회의에서 채택한 각각의 선언문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다. 3개의 선언문은 각각 1993년 10월에 채택된 ‘도쿄선언’, 2003년 11월에 채택된 ‘파리선언’, 2013년 12월에 채택된 ‘앙코르선언’이다.

각 선언문의 분석에 앞서, 선언문이 채택되기까지의 시대적 정황을 파악한다. 이어 각 선언문을 정리하고, 각 조항들이 어떠한 배경과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고찰한다. 또한, 각 선언이 채택된 이후 앙코르유적의 변화를 살펴, 각 선언이 앙코르유적의 보호에 미친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 선언의 유효성을 평가한다.

그리고 앙코르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각 선언문들이 국제적인 인식과 흐름 속에서의 어떠한 영향을 받아왔는지를 고찰하기 위해,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논의되어온 대표적인 국제적 협약 및 선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앙코르유적의 보호가 국제적 문화유산의 보호동향에서 가지는 의의를 고찰한다.

2. 도쿄선언

2-1 도쿄선언에 이르기까지의 앙코르유적 보호와 그 배경

1907년 3월 23일, 삼파 프랑스의 조약으로 인해, 앙코르유적이 위치해 있던 시엠립(Siem-reap)지역이 프랑스령에 포함되었다.³⁾ 이와 함께 앙코르유적

적의 현 상태를 유지 계승하는 것 혹은 그렇게 하기 위한 개입을 뜻한다. “보호”의 범주에 “보존”이 포함된다.

3) Siam(당시의 태국)과 프랑스간의 영토협약으로 인해, 1907년 3월 23일부터 앙코르유적이 위치한 Siemreap, Batambang, Shisophon, 3

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와 보존활동이 프랑스의 극동학원(EFEO)⁴⁾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EFEO는 우선 1908년 앙코르유적의 보존을 전담하는 기구 “Angkor Conservancy”를 창설하였다.⁵⁾ 초기에는 초목의 정비와 산란석재의 정리가 주된 작업이었다. 1920년대에 들어 초보적인 보수작업 및 응급조치가 시작되었으며, 1925년에는 앙코르유적공원이 개설되었다.⁶⁾

본격적인 복원작업은 1930년대에 시작되었다. Angkor Conservancy의 감독관이었던 Henri Marchal은 인도네시아의 Prambanan 사원의 수리를 하고 있던 네델란드령 동인도 고고부(the Archaeological Department of Dutch East Indies)⁷⁾로부터 아나스틸로시스 공법⁸⁾을 전수받아, 1931년 Banteay Srei 사원을 복원했다.⁹⁾ 이 기술에 의한 복원이 성공한 이후, 1936년에 감독관으로 취임한 Maurice Glaize는 많은 유적에 이 기술을 적용하여 수복하기 시작했다.¹⁰⁾

개의 주가 프랑스령이 되었다. (Lawrence Palmer Briggs, *The Treaty of March 23, 1907 Between France and Siam and the Return of Battambang and Angkor to Cambodia*, The Far Eastern Quarterly, Vol.5 No.4,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1946, pp.439-454)

4) ÉFEO;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극동학원) : 프랑스의 아시아 연구기관. 1900년대 초반 인도차이나 전역이 프랑스의 지배하에 있었을 때, 아시아의 사회와 문화, 역사에 대해 전반적인 연구를 위해 창립되었다.

5) ICC-Angkor, UNESCO, 2009, p.29

6) *Considerations for the conservation and presentation of the historic city of Angkor*, World Monuments Fund, 1992, pp.80-81

7) 동인도령네델란드정부는 1901년 Colonial Archaeological Commission(1913년에는 Colonial Archaeological Service로 바뀐다.)를 창설하고, Borobudur사원과 Prambanan사원의 수복을 실시했다. (Monique van den Dries, Corijanne Slappendel, Sjoerd van der Linde, *Dutch Archaeology abroad : From treasure hunting to local community engagement*, European Archaeology Abroad, Sidestone, 2012, pp.136-137)

8) 현대 그리스어인 아나스틸로시스(ΑΝΑΣΤΗΛΩΣΗ, αναστήλωση)는 “위” 혹은 “다시”를 뜻하는 ana와 “원기둥”을 의미하는 stylos의 합성어이다. 즉, 기둥을 다시 세운다는 뜻으로, 건축의 분야에서 잔존부재를 다시 쌓아올리는 수복이라는 뜻 그리스 본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松本修自, 「遺跡・建造物の保存修復 その理念と実践 (下) —ギリシャ・アクロポリスを中心として」, 『文建協通信 No.59』, 文化財建造物保存技術協會, 2000) 아나스틸로시스 공법에 의한 건축물의 수복은 1894년 아테네를 강타한 대지진에 의해 많은 고건축물이 붕괴되었고, 아크로폴리스의 수복을 담당하고 있던 Nikolaos Balanos는 이 기술을 적극 적용하였다. 1931년 아테네에서 개최되었던 “예술적, 역사적 기념건조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국제 전문가회의”에서 이 기술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ユツカ・ヨキレット, 『建築遺産の保存その歴史と現在、アルヒーフ』, 2005)

9) M.Glaize, *Les Monuments du Groupe D’Angkor*, Albert Portail, 1944, p.181

1954년 캄보디아는 프랑스령에서 독립한다. 하지만 Angkor Conservancy는 계속해서 앙코르유적의 보존과 학술조사를 전담하였다. 1959년 Bernard Philoppe Groslier가 Angkor Conservancy에 취임한 이후, 앙코르유적 수복작업의 규모는 커졌다.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적의 하부구조까지 해체 한 후, 기단부의 판축토를 제거하고, 콘크리트 박스를 타설하여 복원하는 방식의 대규모 해체복원이 많은 유적에서 적용되었다.¹¹⁾

하지만 1970년대에 들어 베트남전쟁과 크메르루주(Khmer Rouge)¹²⁾의 집권으로 EFEO를 비롯한 Angkor Conservancy는 1975년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앙코르유적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¹³⁾ 1979년까지 집권했던 크메르루주는 베트남군의 개입으로 정권에서 물러났지만, 태국국경으로 근거지를 옮겨 1990년대 초반까지 저항했다.¹⁴⁾ 이 과정에서 앙코르유적은 도굴 및 약탈로 인한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내전기간 중에는 많은 수의 지뢰가 유적지 주변에도 매설되었다. 또한 심각한 자연의 침식을 받아 붕괴가 가속되었다.

앙코르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1989년 9월에 시작되었다. 파리에서 실시된 Sihanuk왕자와 Federico UNESCO 사무국장간의 수장회의에서 민주캄푸치아연합정부¹⁵⁾의 공식적인 앙코르유적 보호 요청을 UNESCO에 전달했으며, 캄푸치아인민공화국¹⁶⁾의 훈센(Hun Sen)총리 또한 앙코르유적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UNESCO에 요청했다. 이에, 1990년 6월에 방콕에서 제 1차 앙코르를 보호하기 위한 전문가 원탁회의(The first international round table of experts on Angkor, Bangkok)가 실시되었다. 이 회의는 앙코르유적보존

을 위한 본격적 논의가 이루어진 첫번째 국제회의로, 30명의 국제 및 캄보디아인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앙코르유적을 구제하기위해 긴급히 이뤄져야 할 조치와 기초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어, 1991년 9월 파리에서 제 2차 앙코르를 보호하기 위한 전문가 원탁회의(The second international round table of experts on Angkor, PARIS)가 실시되었으며, 유적 보존을 실시하기위한 구체적인 기반설비에 대한 논의와, 전문가양성, 긴급조치,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 등에 대해 논의되었다.¹⁷⁾

또한 캄보디아에 평화가 도래했다고 선언한 1991년 10월의 파리평화협정(Paris Peace Agreement on Cambodia)에서 노로돔 시하누크 (Norodom Sihanouk)¹⁸⁾는 국제사회에 앙코르유적 보호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였다.

1991년 11월에 실시된 UNESCO 총회(26th UNESCO general conference, PARIS)에서는 앙코르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협력방법에 대해서 다시 논의되었고, 프랑스, 인도, 일본, 폴란드가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¹⁹⁾ 또한, 앙코르유적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것에 대한 논의와 기술적, 재정적 지원 방법, 그리고 다른 회원국의 협력을 촉구시키는 방법에 대해 논의되었다. 이렇게 UNESCO의 국제 캠페인 “Save Angkor”가 발족되었다.²⁰⁾

1992년에는 앙코르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단, 앙코르는 세계유산으로 등재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였기에, 3년간의 감찰기간을 두기로 하는 한편, 위기에 놓인 문화유산 목록에 등록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ICOMOS²¹⁾를 통해서 Tab.1과 같은 과제가 부여되었다.²²⁾

10) *Bulletin de l'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BEFEO 53/2, 1967, pp.311-330

11) Catherine Clémentin-Ojha, Pierre-Yves Manguin, *A century in Asia : the history of the 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1898-2006*, EFEO, 2007, pp.98-101

12) 크메르루즈(Khmer Rouge)는 캄보디아의 전 국민 농민화를 통한 극단적 공산주의 혁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지식인 및 일반 국민들이 학살당했으며, 산업시설 및 근대적 산물들이 파괴되었다.

13) 크메르루즈는 1975년 캄보디아 내 모든 외국인을 추방한다.

14) 베트남군의 개입으로 실권한 폴 포트는 태국 국경으로 근거지를 옮겨 게릴라전을 계속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1980년대에 크메르루즈에 회유정책을 펼쳐 지도부의 다수가 귀순하였다. 1997년에 폴 포트는 체포되었고, 1998년 가택에 연금된 상태로 죽었다.

15) 민주 캄푸치아 연합정부; Coalition Government of Democratic Kampuchea

16) 캄푸치아인민공화국; People's Republic of Kampuchea

17) *Respons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afeguarding and development of Angkor*, UNESCO, 1993, pp.18-19

18) 현재 캄보디아 왕국 국왕 노로돔 시하모니의 아버지이자 전왕. 1993년 7월 24일부터 2004년 10월 24일까지 집권했다.

19) *Preservation of the Angkor monuments*, Records of the General Conference, UNESCO, 1991, pp.60-61

20) Philippe DELANGHE, *Brief history of ICC-Angkor*, ICC-Angkor, UNESCO, 2010, pp.27-32

21) ICOMOS: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전문가 연합. 1972년 세계유산조약이 채택된 이후, ICOMOS는 UNESCO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세계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문화유산보호의 원리, 방법론, 과학기술의 응용과 연구를 해 오고 있다. 세계유산 등록의 심사,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다.

22) *16th World Heritage Committee*, UNESCO, 1992, pp.37-38

Tab.1 ICOMOS recommends for the safeguarding Angkor

- 1) 유적보호법 입법
- 2) 앙코르유적 보호를 위한 정부기구의 설치
- 3) 항구적 개발제한지역 설정
- 4) 완충지역의 설정
- 5) 유적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감시기구의 설치

이와 같이 앙코르유적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는 상황인 1993년 10월에 ‘제 1회 앙코르유적의 보호 및 개발을 위한 국제회의 (first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safeguarding and developing Angkor)’가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2-2 도쿄선언문

1993년 10월 12일, 13일 2일간 일본 도쿄에서 앙코르유적 보호를 위한 범정부간 회의가 개최되었다. 30개국의 대사와 7개의 국제기구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회의의 결과를 정리하여 “도쿄선언(Tokyo Declaration)”으로 정리하여 공표하였다. 선언문은 총 13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조항의 요약은 Tab.2에서 나타내었다.

Tab.2 Summary of Tokyo Declaration

제 1항 캄보디아를 상징하는 앙코르유적은 캄보디아 뿐 만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 공통의 중요한 유산이며, 세계가 힘을 합쳐 앙코르유적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행위는 캄보디아 국가의 재건을 상징한다.

제 2, 3항 캄보디아 국왕이 앙코르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요청해 준 사실과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국제사회는 새롭게 선출된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하여 앙코르유적을 보호해 나갈 것이다.

제 4항 이 회의의 목적은 앙코르유적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적 협조를 동원하기 위한 것에 있다.

제 5, 6항 앙코르유적 보호를 위해 협조하고 있는 국제기구, UNESCO, UNDP 등의 활동에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유적보호를 위한 개발제한지역의 설정이 필요하다.

제 7항 앙코르유적 보호에 협력하는 각국 정부와 기구들의 입장에 따른 다양한 협력방법을 존중한다.

제 8항 문화유산의 도굴과 불법거래를 막기 위한 협조를 촉구한다.

제 9항 국제적 기술과 지식을 캄보디아에 전수 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며, 캄보디아 정부가 앙코르유적 보존을 잘 할 수 있도록 공유해 가야 할 것이다.

제 10, 11항 앙코르유적 보호에 대한 대사 수준의 협력위원회를 만들 것이며, 앙코르유적에서 일어나는 모든 보존 및 개발 활동을 이 위원회에 보고 할 것을 요구한다. 이 위원회는 앙코르유적에서 실시되는 모든 프로젝트가 요구하는 기술과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제 12항 앙코르유적에서 실시되는 보존 프로젝트들의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논의하는 회의를 매년 개최할 것을 추천한다.

제 13항 두 번째 범정부간 회의가 적절한 시점에 열릴 것이다.

선언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항에서 3항까지 이 선언의 배경에 대해 언급하고, 제 4항에서 목적을, 제 5항과 6항에서 참가자 및 활동의 주체를 언급하며, 제 7항에서 13항까지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본문은 다음과 같이 해석 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캄보디아에 새롭게 도래한 평화를 축하하며, 이 평화를 위해 노력해온 캄보디아 국왕(제 2항)과 새롭게 선출된 캄보디아 정부(제 3항)와 함께 캄보디아를 재건 해 나갈 것이다. 그 상징으로써 국제사회는 앙코르유적의 보호와 개발에 적극 협력 할 것이다(제 1항).

각국 정부와 국제 기구의 상황에 따른 협력방법을 존중할 것이니(제 7항),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제 4항).

현재의 위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도굴 및 불법거래를 막고(제 8항), 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개발제한지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제 5항, 제 6항). 또한, 앙코르유적을 보존하기 위한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제 9항).

이러한 활동을 비롯한, 앙코르유적 보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구를 창설할 것(제 10항, 제11항), 매년 회의를 개최해서 진행상황 및 정보를 공유 할 것을 추천한다(제 12항).

2-3 도쿄선언으로 인한 영향과 의의

본 장에서는 도쿄선언 이후, 앙코르유적의 보호를 위해 일어난 일들과 도쿄선언과의 관계를 통해 그 의의를 밝히려고 한다.

우선 도쿄선언이 끝난 직후, ‘유적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감시기구’로써 ICC-Angkor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and Development of the Historic Site of Angkor)가 설립되었다(제 10항과 11항). ICC-Angkor는 앙코르유적보호의 주요 지원국인 프

랑스와 일본의 대사가 공동으로 의장을 맡고, UNESCO가 사무국을 맡았다. 각국의 대사와 국제기구의 기관장들이 회원으로 등록되었으며, 매년 1회씩의 정책회의와 기술회의를 개최하기로 정했다(제 12항).²³⁾ 또한, 전문가그룹²⁴⁾을 만들어, 앙코르유적 보존활동에 조력하였다.²⁵⁾ 이 전문가 그룹은 ICC-Angkor회의가 실시되기 전, 대상이 되는 유적 및 기관을 시찰하고, 회의에서 활동에 대한 평가와 권고를 한다. 따라서 ICC-Angkor를 통해, 앙코르유적 전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 유적보존 프로젝트들의 방향성을 일치시킬 수 있고, 많은 국가들과 협력단체의 기술과 정보를 공유 할 수 있었다. ICC-Angkor의 활동은 2014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1994년 캄보디아 정부는 앙코르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항구적 개발제한지역’과 ‘완충지역’에 해당하는 ‘앙코르유적 보호지역’을 설정하고 선포하였다(제 5항, 제 6항). 보호지역은 총 5개의 레벨로 구분되며, Tab.3과 같이 각 레벨에 따라 제한되는 수준이 달라진다.²⁶⁾

1995년에는 ‘앙코르유적 보호를 위한 정부기구’인 APSARA기구²⁷⁾를 창설했다. APSARA기구는 재정적, 행정적으로 독립된 정부독립기구로써, 앙코르유적과 Siemreap지역의 문화유산 전반에 관한 보존, 관리, 정비, 조사, 관광정비, 관련전문가 양성, 지역사회에 대한 조사, 지역문화와 문화유산의 관리를 전담한다. 초기의 국제협력사업은 독자적으로 진행되었지만, 기술 이전과 함께 APSARA기구와의 공동사업으로 발전해 나갔다(제 9항).

23) 본회의에서는 정책방향과 자금운용, 새로운 프로젝트 등에 관해서 의논한다. 기술회의에서는 앙코르유적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단체의 현재 진행상태를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기술적 부분에 관해서 토론한다. 두 회의 내용은 영문과 프랑스어로 출판하고 있다.

24) 현재 ICC-Angkor의 ad hoc 그룹은 두 가지로 구성되고 있다. 하나는 “유적보존”에 대한 전문가그룹으로 4명으로 구성되며, 두 명의 공동의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하고, ICOMOS와 ICCROM이 각각 한 명씩을 추천한다. 또 하나의 전문가 그룹은 “시엠립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전문가 그룹으로 2006년에 신설되었다. 공동의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하고, APSARA기구가 한 명을 추천한다.

25) ICC-Angkor의 권고는 강제성을 가지지 않지만, 세계 각국의 국가와 기구가 국제적 원조라는 미명하에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당성에 있어 국제적 문화유산 보호 전문가로 부터의 평가는 큰 영향력을 가진다.

26) Cambodia Royal Decree, *establishing Protected Cultural Zones in the Siem Reap/Angkor Region and Guidelines for their Management*, 1994 (Royal Decree No.001 28, May, 1994)

27) APSARA기구; the Authority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Angkor and the Region of Siem Reap.

Tab.3 Level of protection (Zoning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Plan of Angkor)

Zone 1 : Monumental sites
Zone 2 : Protected archeological reserves (or buffer zone)
Zone 3 : Protected cultural landscapes
Zone 4 : Sites of archaeological, anthropological or historical interest
Zone 5 : Socio-economic and cultural development perimeter of the Siem-Reap / Angkor region

이어 1996년에는 ‘문화유산보호법’이 공포되었다. 공포당시 총 3장 67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률은 문화유산과 문화재를 위법적인 파괴와 개발 및 도시화, 해외로의 반출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 8항).

도쿄선언에서 앙코르유적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 한 것과, 1991년의 UNESCO 국제 캠페인인 “Save Angkor”, 그리고 파리평화협정에서 국왕의 요청으로, 많은 국가와 기관들이 참여하기 시작했다(제 4항, 제 7항).

1989년의 가장 먼저 인도의 ASI(Archeological Survey of India; 인도)²⁸⁾가 Angkor Wat의 긴급구조를 시작으로 앙코르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해외로부터의 협력이 시작되었다. 1991년에는 EFEO(프랑스)가 복귀하여, 왕궁 주변의 테라스의 보존, 이어 Baphoun사원의 복원을 재개하였고, 미국계 국제 NPO인 WMF(World Monument Fund; 미국)는 Preah Khan의 정비를 시작했다. 1994년에는 일본정부가 UNESCO신탁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JSA(Japanese Government Team for Safeguarding Angkor; 일본)를 설립한 후 Bayon사원의 구제를 실시했다. 또한 헝가리 정부를 주축으로 구성된 Royal Angkor Foundation(헝가리)가 Preah Ko사원의 보존프로젝트를 시작했다. 1995년 I. Ge. S.(이탈리아)가 Pre Rub사원의 보존을 그리고 Indonesian Technical Assistant for Safeguard Angkor(인도네시아)가 왕궁 주변에 위치한 3개의 탑문의 부분 해체복원을 실시했다. 1997년 GACP(German APSARA Conservation Project, 독일)는 폭우로 붕괴된 Angkor Wat의 환호 복원을 시작으로 앙코르

28) ASI(Archeological Survey of India)는 인도 문화국 산하 기관으로, 인도의 문화유산을 보호, 연구하기 위한 기관이다. 캄보디아에서는 앙코르 왓의 회랑의 수복을 시작으로, 타 프롬 사원의 수복을 담당하고 있다.

유적보존에 참여하고 있다. 2000년에는 중국의 CSA(Chinese Government Team for Safeguarding Angkor; 중국)가 거의 붕괴되어 있던 Chau Say Tevoda를 복원하기 시작했고, 일본 조치대학의 Sophia Asia Center(일본)는 Angkor Wat의 참배로의 수리를 시작했다. 2002년에는 BSCP(Banteay Srei Conservation Project; 스위스)가 Bantay Srei의 정비를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앙코르유적 보존활동에 참가하였다. 한편, 서로가 가진 장점을 살려 앙코르유적 보존에 협력한 결과, 앙코르유적 보존활동은 국가 및 기구에 따른 특색을 가진다(제 7항)²⁹⁾.

이와 같이 도쿄선언은 앙코르유적 보호의 시작을 알리는 장이되었다. 한편으로 도쿄선언은 강제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새로이 창설되어 의욕적이었던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었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가를 이끌어내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논의되었던 대부분의 항목이 실현될 수 있었고, 앙코르유적의 보존 및 구제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3. 파리선언

3-1 파리선언에 이르기까지의 앙코르유적 보호와 그 배경

파리선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2.3에서 설명한 도쿄선언 이후의 앙코르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과 함께, 서서히 시작되는 관광산업 및 개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앙코르유적의 구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앙코르유적이 위치한 시엠립지역에서 변화가 관찰되기 시작했다. 우선 관광객이 증가하였다. 1998년 앙코르유적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약 5만 명에 머물렀으나, 2002년에는 316,000명으로 5년 동안 약 6배 증가했다.³⁰⁾ 내국인 관광객 수 또한 2002년 300,000명 정도로 추정되었다.³¹⁾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관광산업 등의 일자리를 창출했고³²⁾, 이는 타지로부터의 이주민을 증가시켰다. 시엠립의 인구증가는 1998년 696,164명이 2008년 896,309명으로 10년 동안 연간 평균 2.5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같은 기간 캄보디아 전체 인구증가율이 1.54%로³³⁾ 이는 시엠립으로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주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관광객의 증가와 주민의 증가는 지역 개발을 부추기기 시작했다.³⁴⁾

국제적으로 주목할 만한 일은 2002년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제 26회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균형을 촉구하는 “부다페스트 선언(Budapest Declaration)”이 채택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03년 11월 ‘제 2회 앙코르유적의 보호 및 개발을 위한 국제회의 (first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safeguarding and developing Angkor)’가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3-2 파리선언문

2003년 11월 14일, 15일 2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앙코르유적 보호를 위한 범정부간 회의가 개최되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35개국 대사와 12개의 국제기구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회의의 결과를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으로 정리하여 공표하였다. 선언문은 총 17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조항의 요점은 Tab.3과 같다.

Tab.3 Summary of Paris Declaration

<p>제 1, 2항 앙코르유적의 보호와 개발에 힘써준 캄보디아 시하누크 국왕과 ICC-Angkor의장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에 감사한다.</p> <p>제 3항 ICC-Angkor가 앙코르유적에 적용한 방법들이, 도쿄선언에서 명시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다. 프랑스와 일본의 ICC-Angkor공동의장과 UNESCO 사무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p>
--

29) 독일의 GACP의 경우 석재표면의 강화기술에 집중하여, 앙코르유적의 석조조각물의 보존에 성과를 내고 있다. 일본의 JSA는 크메르 고대기술에 주목하여, 내부 관축구조의 복원과 같은 성과를 내고 있다. 스위스의 BSCP는 대상 유적인 Banteay Srei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적 공원화 프로젝트를 실시하였고, 이는 현재까지, 앙코르유적 보존 프로젝트 중 특수한 경우에 해당된다.

30) 앙코르유적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의 증가의 이유는 1997년 크메르루주의 지도자 폴 포트가 체포되어 내전이 종식되는 등, 캄보디아 국내의 내전이 안정된 것 가장 크며, 황폐했던 기반설비가 차츰 갖춰지기 시작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2013년 200만명에 도달했다.

31) *Second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for the Safeguarding and the Development of Angkor*, UNESCO, Paris, 2003, pp.35

32) 일차적으로 호텔, 식당, 기념품샵, 운전기사 등의 직업이 증가하였고, 이어서 시엠립의 일반가게, 새로운 건물을 짓기위한 건설인부, 구걸을 주업으로 삼는 거지들이 급증했다. Miura, *World Heritage Making in Angkor*, 2011, p. 29

33) *General Population Census of Cambodia 2008 - Provisional population totals*,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Ministry of Planning of Cambodia. 2008. p.8

34) Ourng, Chanvoleak, *Modeling urban growth pattern for sustainable archaeological sites : a case study in Siem Reap, Cambodia*, WSEAS Press, 2011

제 4항 앙코르유적 보호를 위한 캄보디아 정부기구인 APSARA기구를 비롯한 캄보디아 정부기구들이 앙코르유적의 보호와 개발에 노력해온 점에 대해서 감사한다. APSARA기구의 인적, 재정적 확충으로 더 큰 역량을 갖춰나가기를 촉구한다.

제 5항 도쿄선언 이후, 친환경 역사공간인 앙코르를 보호하고 개발하기 위한 양적 질적 지식의 증대에 만족을 표하며, 여기에 공헌한 국가들 연구기구들에 감사를 표한다. 한편으로 고고학, 비문학, 사학 조사를 장려한다.

제 6항 APSARA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고, 앙코르유적의 보존과 개발을 위한 ICC-Angkor체제 하에서 국제협력을 추구하는 목적을 재확인 한다.

제 7항 앙코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기구 및 연구소들이 앙코르의 보존, 전시, 개발을 위한 활동 지침서를 만들기를 추천한다. 지침서의 내용은 ICC-Angkor 정기총회에서 ad hoc그룹이 제안한 내용들을 참고 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지침서의 사례로써 일본정부앙코르유적구제팀(JSA)에서 만든 ‘바이온현장’을 언급하고 있다.

제 8항 앙코르의 보호와 환경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참가자들을 환영하며, ICC-Angkor와 함께 협력하기를 바란다.

제 9항 앞으로의 앙코르유적 보호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요구된다.

제 10항 윤리적이며, 지속가능한 관광은 다른 문화 및 다른 문명 간의 교류와 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도구로써, 지구사회간의 결속을 강화시켜 평화를 이룩함에 공헌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11항에서는 10항에서 밝힌 생각을 바탕으로 앙코르유적에서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광이 자리 잡기를 바라며, 이것이 가난을 해소하는 도구로 이용되기를 바란다. 한편, 앙코르와 톤레삽 주변 지역사회의 유무형 문화자원에 주목하고, 지역주민에게 교육과 훈련을 통해 고용기회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 12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ICC-Angkor에서는 시엠립의 경제, 사회, 환경 등 모든 양상에 대해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고, UNESCO의 세계유산위원회에도 보고하여 세계유산 컨벤션의 지침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제 13항 국제적 전문가로부터 캄보디아 전문가에게 기술이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제팀들이 대학교육과 연구조사 및 훈련에 기여하기를 장려하며, APSARA기구가 이러한 활동에 적극협력하기를 제안한다.

제 14항 조사, 연구를 통해 얻어진 앙코르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앙코르 국제 문서센터를 통해서 공유되기를 촉구하며, 관련된 기구 및 단체들은 정기적인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기를 제안한다.

제 15항 앙코르지역에서 실시되어 온 지뢰제거 작업과 도굴 방지를 위한 노력에 만족한다. 이러한 활동이 캄보디아 전역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제 16항 앙코르유적의 보존과 개발을 위해 적용된 방법들이 효과적이었던 것에 만족한다. 여기서 얻어진 경험들은 유사한 환경에 놓인 세계의 다양한 문화유산들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방법들이 캄보디아에서 더욱 견고히 적용되어 가는 것을 살펴 볼 것이다.

제 17항에서는 상기한 제안들에 따른 평가와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점에 세 번째 범정부간 회의를 캄보디아에서 개최할 것이다.

선언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항과 2항에서는 선언의 배경에 대해 언급하고, 제 3항에서 8항까지, 그리고 제 13항에서 15항까지는 지난 10년간의 실행해온 활동에 대한 평가와 조언을, 제 9항에서 12항까지는 새로운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본문은 다음과 같이 해석 할 수 있다.

앙코르유적의 보호를 위해 힘써준 캄보디아의 국왕과 ICC-Angkor의 의장(제 1항), 캄보디아 정부(제 2항), UNESCO 사무국과 ICC-Angkor의 두 의장국인 프랑스와 일본(제 3항), APSARA기구(제 4항)에 감사한다.

지난 1993년 도쿄선언에서의 앙코르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용한 방법들은 효과적이었고(제 16항), 활동과 연구 성과에 만족을 표한다(제 5항).

특히, 앙코르유적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지뢰제거 작업과 도굴방지운동(제 15항), 유적을 구제하기 위한 보존활동과 관련된 연구 성과(제 5항)에 만족을 표한다. 단, 앞으로의 활동에 있어서는 정기적인 보고서를 발간할 것(제 14항), 앙코르의 보존, 전시, 개발을 위한 지침서를 만들 것(제 7항)을 장려한다. 이를 통해서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고(제 14항), 나아가 교육 및 훈련에 협조하여, 캄보디아 전문가 양성에 적극 협력하기를 제안한다(제 13항).

앞으로 APSARA기구는 더욱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제 4항)이며, 더 많은 국제기구의 참여를 장려한다(제 6항)

한편으로, 앙코르유적과 시엠립지역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제 9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윤리적 관광과 지속가능한 개발이 전제되어야 하며(제 10항) 이는 지역사회와의 유대가 필요하다(제 11항). 앞으로, ICC-Angkor에서는 시엠립의 경제, 사회, 환경 등 모든 양상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제 12항).

3-3 파리선언으로 인한 영향과 의의

파리선언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유적보호를 위해 실시된 개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평가에 힘입어 앙코르유적은 2004년 7월에 UNESCO가 지정한 ‘위기에 처한 유산 리스트(List of World Heritage in Danger)’에서 삭제된다. 이 평가에서는 앙코르유적이 완전히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 활동과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 세계의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한 결과, 위급한 위기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어 결정된 결과이다(제 3항, 제 16항).³⁵⁾

파리선언은 앙코르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보존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³⁶⁾ 2005년, “일본정부앙코르유적구제팀”인 JSA는 파리선언에서 장려한 캄보디아에의 기술이전 및 현지인 기술자 양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JSA(Japanese Government Team for Safeguarding Angkor)를 JASA (Japan/Apsara Safeguarding Angkor)로 변경하였다. 이후, 현장 총 책임자를 캄보디아인 기술자로 임명하는 등, 현지인 기술자 양성을 위해 노력하였다(제 13항).³⁷⁾

그리고 파리선언에서 정보 및 기술의 공유를 장려한 결과, 많은 프로젝트들이 보고서 발간 및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일은 2012년 2월에 발표된 “Angkor Charter”를 들 수 있다. Giorgio Croci를 비롯한 24명의 ICC-Angkor Ad hoc멤버가 만든 앙코르유적 보존 지침서로, 앙코르유적을 보존하기 위해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만들었다(제 7항, 제 14항).³⁸⁾

파리선언은 앙코르유적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노력에도 많은 영향을 줬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에서부터 강조되기 시작하여, 1994년 UNESCO의 “문화경관의 운영지침”을 통해서 처음 문화유산에 도입되었다. 이어, 파리선언의 바로 1년전인 2002년 부다페스트에서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보존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부다페스트선언이 채택되었다.³⁹⁾ 파리선언은 이러한 국제적 문화유산 보호의 흐름을 앙코르에 적용한 것에 의의를 가진다(제 9항, 10항).

ICC-Angkor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2006년 11월에 이 부분을 담당하는 새로운 ad hoc 그룹을 창설했다(제 12항). 2003년 이후 ICC-Angkor의 협력 하에, 앙코르유적 지역에서는 16개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프로젝트와 6개의 보존과 개발의 연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제 8항).⁴⁰⁾

한편으로 지속가능한 개발과 함께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제 11항). “지역사회”는 2000년대 후반부터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주요테마로 떠오른다.

파리선언이 앙코르유적과 유적지가 위치한 시엠립 지역에 미친 영향을 통해서, 파리선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한다. 첫째, 도쿄선언 이후 이루어져 온 앙코르유적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이 유효했다는 공식적인 평가를 내렸고, 이 프로젝트를 다시 한 번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앙코르유적의 보호를 위한 논의가 위기에 처한 유산을 구제하기 위한 물리적 보존의 단계를 넘어, 장기적인 보호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및 윤리적인 활용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었다는 의의를 가진다.

4. 앙코르선언

4-1 앙코르선언에 이르기까지의 앙코르유적 보호와 그 배경

2003년 파리선언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요성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의 앙코르유적 개발은 질적 성장 보다 양적성장에 치우친 경향이 크다.

우선 관광객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02년 앙코르역사공원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30만

35) 28th World Heritage Committee, UNESCO, 2004, pp.71-72

36) EFEO는 Baphoun사원의 수복을 계속하여 2011년 4월에 완료했다. 종료 이후, 2012년부터 West Bebon사원의 수복을 시작했다. CSA는 Chau Say Tevoda사원의 수복을 2007년 8월에 완료했으며, 현재는 2010년부터 Ta Keo 사원의 수복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I.Ge.S.에 의한 Pre Rub사원의 수복은 2003년 종료했다. 일본의 Sophia 대학의 앙코르 왓 서쪽 참베로의 1차 수복은 2007년에 종료되었고, 2차 수복이 2014년 혹은 2015년에 시작될 예정이다. WMF의 Preah Khan사원과 앙코르 왓의 동쪽 회랑 수복작업은 2013년 종료했으며, 현재로써는 2004년부터 시작된 Phnom Bakheng 사원에서의 수복이 진행 중에 있다. JSA는 바이온 사원에서 2005년부터 시작된 3차 프로젝트를 2011년에 완료하였고 2012년부터 4차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37) NAKAGAWA Takeshi, *The Master Plan for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the Bayon Complex*, JSA, 2005, p93

38) *Angkor Charter*, UNESCO, 2012

39) 26th World Heritage Committee, UNESCO, 2002, pp.6-7

40) *20Year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CC-Angkor and UNESCO, 2013, pp.41-48

명 정도였지만, 2007년에는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Fig.1)⁴¹⁾, 2013년에는 2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확히 산정되지는 않지만⁴²⁾ 내국인 관광객 또한 외국인 관광객과 비슷한 수치로, 2013년에는 약 200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2013년 앙코르 유적을 방문한 총 관광객 수는 4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⁴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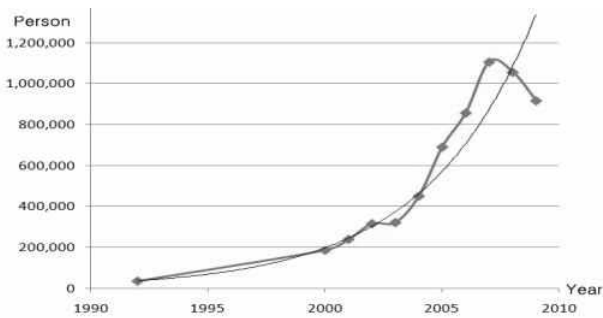


Fig.1 A number of annual foreign visitors⁴⁴⁾

이어서, 2005년 관광을 통한 총 수입이 US\$ 1,078,000,000로 추정되어, 캄보디아 국민 총생산량 (GDP)의 10%를 넘어섰다. 이후 2013년까지 개발도상국의 고도성장에 따른 경제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은 계속적으로 총 GDP의 10% 이상의 비중을 유지했다.

시엠립시 또한 많은 발전을 겪었다. 1994년 앙코르 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개발제한지역과 완충지역의 설정과 1996년에 제정된 ‘문화유산보호법’으로 선택적 발전이 이루어 졌지만, 2011년 Chanvoleak는 도시의 확대가 유적에 영향을 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하고 있다.⁴⁵⁾

발전에 따른 환경의 변화도 눈에 띈다. 2006년 JICA(the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는 “시엠립 도시의 확장으로 호텔 등 많은 시설이 들어섰지만, 기반설비의 부족으로, 지하수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이는 지하수위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반침하의 위험이 크다”고 보고하고 있

41) ICC 19th Plenary Session Activity Reports, ICC-Angkor, 2011

42) 앙코르역사공원의 입장에 있어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서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어 정확한 내국인 관광객의 수치를 알기 어렵다.

43) APSARA기구 고고부 부장 AN Sopheap과의 인터뷰

44) 2009년과 2010년에 관광객 수가 감소한 것은 미국발 세계 경제 불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45) Ourng, Chanvoleak, *Modeling urban growth pattern for sustainable archaeological sites : a case study in Siem Reap, Cambodia*, WSEAS Press, 2011

다.⁴⁶⁾

또한 2008년 독일의 GIZ는 “매년 시엠립지역의 지표수 또한 감소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상수원 지역의 과도한 벌목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⁴⁷⁾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13년 12월 ‘제 3회 앙코르 유적의 보호 및 개발을 위한 국제회의 (first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safeguarding and developing Angkor)’가 시엠립에서 개최되었다.

4-2. 앙코르선언문

2013년 12월 5일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앙코르유적 보호를 위한 범정부간 회의가 개최되었다. 21개국 대사와 10개의 국제기구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회의의 결과를 “앙코르선언(Angkor Declaration)”으로 정리하여 발표했다. 선언문은 총 1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조항의 요점은 Tab.5와 같다.

Tab.5 Summary of Angkor Declaration

<p>제 1항 앙코르유적의 보호와 개발에 힘쓰고 있는 캄보디아 시하모니국왕에게 감사를 표한다.</p> <p>제 2항 과거 20년간 실행된 앙코르유적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노력한 캄보디아 정부에 감사한다.</p> <p>제 3항 앙코르유적의 보호를 전담하는 캄보디아 정부 APSARA기구의 활동과 그들의 협조로 성공적인 국제 협력 활동이 가능할 수 있었던 점을 높게 평가한다.</p> <p>제 4항 도쿄선언과 파리선언의 목적을 위해 노력해 온 ICC앙코르 공동의장인 프랑스와 일본에 감사한다.</p> <p>제 5항 사무국으로써 노력해 준 UNESCO와 ICC-Angkor 상설 사무국에 감사한다.</p> <p>제 6항 이 회의의 주제가 ‘살아있는 유산, 앙코르의 지속가능하고 광범위한 관리’임을 밝힌다. 과거 20년간의 성과를 축하하고, 앞으로 10년간의 구성에 대해 논의할 것을 명시한다.</p> <p>제 7항 앙코르유적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ICC-Angkor 체제 속에서 국제협력이 지속적으로 진행 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전문분야에 걸쳐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프로젝트가 실행되어 나가야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p>
--

46) *The study on integrated master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Siem Reap/Angkor Town in the Kingdom of Cambodia: final report (Vol1)*, JICA, 2006, p.7

47) Kirsch, *Management of Pilot Watershed Areas in Cambodia : Watershed Profile of the Stung Siem reap Watershed*, MRC-GTZ, 2008

제 8항 앙코르유적의 보존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토론을 반영하여 ‘앙코르 현장’을 발표하였다. 이 현장은 앙코르유적의 윤리적 발전과 보존 방법론을 망라하고 있으며, 이 현장이 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참고자료로써, 아시아 및 다른 지역의 문화와 역사 유산 등에서 폭넓게 공유되기를 희망한다.

제 9항 지속가능한 개발이 더욱 중요해 졌음을 명시한다. 이어, 앙코르유적을 살아있는 유산으로 보고,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관리를 위해, 물, 숲, 문화경관의 보존과 윤리적인 관광, 친환경적 역사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과 그에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를 염두에 두고 다음 10년간의 노력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 10항 전문적 기술과 지식의 이전이 중요하다. 관련된 국가 및 기구는 캄보디아인 동료 및 APSARA기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할 것을 장려하다.

제 11항 개발로 인해 사라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므로, 사라지기 쉬운 개체군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제 12항 지역사회의 관심은 유적의 보호와 관리의 중심에 있어야 하고, 유적지구에서 파생되는 이익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명정대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제 13항 문화재의 불법 밀매와 약탈을 막기 위한 노력과 그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이 과제에 대해서는 더 큰 주의가 요구된다.

제 14항 유적에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있기에, ICC-Angkor는 여기에서 파생되는 정보와 전문가들의 평가를 관리하고 국제적 표준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프로젝트의 일관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

제 15항 앙코르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앙코르유적의 보호를 위해, APSARA기구는 최대한의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가지기를 바란다.

제 16항에서는 지난 20년간의 앙코르유적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국가 간의 갈등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위기에 놓인 다른 문화유산들이 따라야 할 성공적인 모델로써 공인되어야 한다.

선언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항에서 5항까지 이 선언의 배경에 대해 언급하고, 제 6항과 7항에서 목적을 말하고 있다. 제 8항에서는 지난 활동을 정리하고, 제 9항에서 13항까지는 앞으로의 새로운 활동에 대해서, 제14항과 15항에서는 그 활동의 방법 및 방향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다. 본문은 다음과 같이 해석 할 수 있다.

우선, 지난 20년간 앙코르유적의 보호와 개발을 위해 힘써준 캄보디아의 국왕(제 1항)과 캄보디아 정부(제 2항), APSARA기구(제 3항) ICC-Angkor

의 두 의장국인 프랑스와 일본(제 4항)과 UNESCO와 ICC-Angkor (제 5항)에 감사한다.

본문에 앞서, 지난 20년간 앙코르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성과를 축하하고(제6항), 그 경험과 토론을 반영하여 ‘앙코르 현장’으로 정리했다(제 8항).

위기를 벗어난 앙코르유적의 장기적 보존을 위해서는 윤리적 활용과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자연경관과 문화경관, 지역의 유무형 문화 등 많은 것들이 사라질 수 있다(제 9항, 제 11항). 따라서 본 회의에서는 ‘살아있는 유산 앙코르의 지속가능하고 광범위한 관리’를 주제로 한다(제 6항).

앙코르유적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의 ICC-Angkor 체제 속에서 국제협력이 계속되어야 하며(제 14항), 앞으로는 더욱 다양한 전문분야에 걸친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프로젝트를 실행해 나가야 한다(제 7항). APSARA기구는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가지기를 장려하며(제 15항), ICC-Angkor는 국제적 표준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프로젝트의 일관성을 지킬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제 14항).

이러한 앙코르유적의 보호와 개발의 중심에 지역사회가 있어야 할 것이며, 발생하는 수익은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할 것이다(제 12항).

4-3 앙코르선언의 의의

앙코르선언이 채택된 이후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지 않아, 앙코르선언의 영향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아직 이르다. 따라서 선언문 자체의 내용을 통해서 그 의의를 고찰하려고 한다.

우선 앙코르선언은 국제사회가 앙코르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기 시작한 후 20년이 경과 한 시점을 기념하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앞에서 다룬 것과 같이, 1993년과 2003년 매 10년마다 앙코르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간 회의가 열렸으며, 회의를 통해서 당면한 과제와 국제적 흐름을 상기시켜왔다. 앙코르선언은 그 3번째 회의로써 의의를 가진다.

파리선언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 큰 효과를 얻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것은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세계유산협약이 채택된 이후 꾸준히 논의되어 온 문제이다.⁴⁸⁾

지난 2003년 파리선언에서 언급되었지만, 앙코르

48) 34th World Heritage Committee(WHC-10/34.COM/5D), UNESCO, 2010, pp.1-2

선언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지역사회”라는 키워드에 무게를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가진 유, 무형의 문화까지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제시하여, 앙코르유적 보호의 논의의 범주가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논의 속에서도, “지역사회”는 중요한 요소로 거론되기 시작되고 있다. 2007년 UNESCO는 “지역사회”를 세계유산협약을 실천해 나가기 위한 전략목표로써 채택했으며,⁴⁹⁾ 2011년 3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그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⁵⁰⁾ 2012년에는 세계유산협약 4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 각지에서 ‘세계유산협약의 지속가능한 발전 : 지역의 역할’을 주제로 회의들이 개최되었다.⁵¹⁾

이와 같이 도쿄선언, 파리선언, 앙코르선언으로 이어져온 앙코르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는, 초기의 앙코르유적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대한 지역적 논의에서, 점차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보편적 논의까지 확장되어 왔다고 이해 할 수 있다.

5. 문화유산 보호의 국제적 동향과 앙코르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세 선언

5-1 문화유산 보호의 국제적 동향

지난 20년간 앙코르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작성된 세 선언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앙코르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이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동향으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알기 위해,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대표적 국제적 논의를 들어 그 관계를 밝힌다.

제 1차 세계대전(1914-1918)으로 많은 역사적 건조물이 파괴된 이후,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1931년 아테네헌장(Athens Charter)에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최초의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 졌다.⁵²⁾⁵³⁾ 아테네헌장의 배경이 되었던 회의⁵⁴⁾에서는 문

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정성, 경관의 보존, 아나스틸로시스, 콘크리트의 사용 등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⁵⁵⁾

하지만 제 2차 세계대전(1939-1945)으로 인해 또 다시 많은 역사적 건조물들이 파괴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이후 문화유산을 보호의 국제적 동향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우선, 교육, 과학, 문화의 교류를 통해 국제평화와 안전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UNESCO가 창설되었다(1946). 이어 전시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헤이그협약(1954)이 맺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역사기념물 보존회의가 개최되었고, 아테네헌장을 보완 작성한 베니스헌장(1964)이 채택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61개국 600명의 참가자와 국제기구⁵⁶⁾의 대표들이 참가하여, 경관, 복원, 현대기술의 적용 등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철학적, 기술적, 제도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헌장은 전 세계의 문화재 보호에 관한 기본 정신을 정립한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⁵⁷⁾ 베니스 헌장의 영향으로 다음해인 1965년 세계의 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을 목적으로 ICOMOS⁵⁸⁾가 창설되었다.

한편 UNESCO는 1960년대에 수몰 위기에 처한 누비아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캠페인을 시작했다.⁵⁹⁾ 이를 계기로 인류의 중요한 역사, 문화, 예술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인류유산의 보호는 더 이상 해당국만의 몫이 아닌, 인류 공동의 책임이라는 국제적 인식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1972년 UNESCO는 세계유산협약을 채택하였다.⁶⁰⁾

테네에서 “예술적, 역사적 기념물의 보존과 보호를 위한 국제전문가 회의(아테네회의)”를 개최했다. 정식이름은 “La Conference internationale d’experts pour la protection et la conservation des monuments d’art et d’histoire”이다. 아테네헌장은 이 회의에서 내린 결론을 말한다.

55) 최병하, 「아테네헌장(1931)의 재고」, 『건축역사연구 제 21권 4호 통권 83호』, 2012년 8월, pp.25-36

56) UNESCO, ICCROM, ICOM, 유럽회의의 대표들이 참가했다.

57) 이태녕, 도춘호, 「베니스 헌장의 해설과 번역」, 『보존과학회지』, vol7, No.2, 1998, pp.86-91

58) ICOMOS(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역사기념물과 유적의 보호를 위해 전문가와의 소통, 정보의 수집 및 보급, 원칙, 기술, 훈련 등을 통해 문화유산 지역의 보존과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59) *Save the treasures of Nubia*, The UNESCO Courier, UNESCO, 1960, p.3

60) 박진재, 『세계문화유산 제도의 전개 양상과 운영의 추이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12, p.40

49) *31th World Heritage Committee*, UNESCO, 2007

50) *35th World Heritage Committee*, UNESCO, 2011

51) 박진재, 『세계문화유산 제도의 전개 양상과 운영의 추이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12, p.15

52) 박소현, 「문화유산 보존과 관련된 국제 헌장의 흐름, 1931년의 아테네헌장에서부터 2008년 문화루트헌장에 이르기까지」, 『이코모스 헌장 선언문집』, (사)이코모스 한국위원회, 2010, p.8

53) Jukka Jokileto, *A History of Architectural Conservation*, Butterworth-Heinemann, 1999, p.284

54) 1931년 국제박물관사무소가 그리스 공공 교육부의 지원하에 아

세계유산협약에서는 세계 각국의 유산들 중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 OUV)를 가진 유산들을 해당국과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보존 관리하기를 장려하고 있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UNESCO는 1975년 세계유산위원회를 창설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매년 뛰어난 유산들을 대상으로 세계유산에 등록하는데, 1972년 12건을 시작으로 2014년 6월 현재 981건이 등록되어 있다.⁶¹⁾

1981년에는 문화경관의 개념이 확산된다. 이미 앞의 아테네헌장과 베니스헌장에서 문화경관의 중요성이 논의되었지만, 1981년 국제역사정원위원회(ICOMOS-IFLA) 플로렌스에서 역사정원 또한 문화유산으로써 잘 보존되어야 한다는 ‘플로렌스헌장(The Florence Charter)’을 채택한다. 1992년의 제16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문화경관’의 개념이 세계유산제도에 도입되었다.⁶²⁾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앞의 3.1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의 균형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2002년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제 26회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개발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부다페스트선언(Budapest Declaration)’이 채택되었다.⁶³⁾

2000년대 후반에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2007년 UNESCO는 “지역사회”를 세계유산협약을 실천해 나가기 위한 전략목표 중 하나로써 채택했으며,⁶⁴⁾ 2011년 3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그 중요성을 제차 강조했다.⁶⁵⁾

5-2 문화유산 보호의 국제적 동향과 앙코르유적 보호와의 관계

본 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문화유산 보호 동향과 앙코르유적 보호의 관계를 살펴본다.

우선 앙코르유적 보호를 프랑스에 의한 보존시기(1908-1975)과 국제협력에 의한 보존시기(1990-현재)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1908년 프랑스에 의해 앙코르유적보존사무소(Angkor Conservancy)가 설립된 이후 발생한 대외적 사건은 1914-1918년의 제 1차 세계대전, 1939-1945년의 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하지만 두 번의 전쟁기간 중에도 앙코르유적의 정비사

업 및 수복사업이 꾸준히 진행된 것⁶⁶⁾⁶⁷⁾으로 보아, 전쟁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1931년에는 문화유산의 주요개념과 원칙을 처음으로 합의한 아테네헌장이 작성되었다. 이를 위한 회의에서 아나스틸로시스가 국제적으로 소개되었으며, 문화유산의 수복에 콘크리트의 적절한 사용이 추천되었다⁶⁸⁾는 점을 주목하고 싶다. 이 시기의 앙코르유적에서는 1930년 H.Marchal가 아나스틸로시스 공법을 배워, 1931년 앙코르에 적용하였다. 또한, 콘크리트는 1920년대에 이미 앙코르유적의 안정화 및 초보적인 보수공사를 위해 적용되고 있었다.

1964년 베니스헌장이 채택되는 시기에는 앙코르에서는 B.P.Groslier에 의한 다수의 대규모 수복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⁶⁹⁾ 베니스헌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화유산 보존 원칙들은 이미 앙코르유적의 수복에 적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⁷⁰⁾ 예를 들어, Prasat Kravan 사원의 수복(1961-1966)에 사용된 새로운 벽돌재료는 원래의 재료와 구분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마크가 새겨져 있다. 또한 콘크리트의 적용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구조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보존방법론은 베니스헌장 제 12조의 “복원에 있어서는 원형과 식별되나, 전체와 조화롭게 한다.”의 논조와 함께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972년 국제적인 관점에서 문화유산을 보존해야 한다는 취지의 세계유산협약이 체결되었다. 이 시점에 캄보디아는 내정이 점점 불안해져, 1975년 프랑스에 의한 앙코르유적 보존활동은 중단되었다. 1900년대 초반에서 1975년까지 진행된 앙코르유적 보호 활동은 국제적 문화유산 보호 동향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 앙코르유적의 보존은 국제사회의 협력과 함께 재개된다. 1991년부터 시작된 국제 캠페인 Save Angkor와 1993년의 도쿄선언은 1972년의 세계유산협약의 정신을 잇고 있으며, 세계유산

66) *Bulletin de l'Ecole française d'Extreme-Orient*, BEFEO 16/5, 1916, pp.105-107

67) *Bulletin de l'Ecole française d'Extreme-Orient*, BEFEO 53/2, 1967, pp.311-330

68) 최병하, 「아테네헌장(1931)의 재고」, 『건축역사연구 제 21권 4호 통권 83호』, 2012년 8월, p.29, p.31

69) 앙코르왓 서쪽 회랑의 수리(1960-1970), 앙코르 톰의 남쪽 도로 정비(1960-1968), Prasat Kravan 사원의 해체복원(1961-1966), 왕궁 앞 테라스의 수리(1968-1971), Baphoun 사원의 해체복원(1960-1971)이 진행되었다.

70) B.P.Groslier에 의해 실시된 대규모 수복작업은 앙코르유적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구조에 철근 콘크리트를 적극 적용하고 있다.

61) UNESCO 홈페이지 참고, <http://whc.unesco.org/>

62) *16th World Heritage Committee*, UNESCO, 1992

63) *26th World Heritage Committee*, UNESCO, 2002

64) *31th World Heritage Committee*, UNESCO, 2007

65) *35th World Heritage Committee*, UNESCO, 2011

위원회 및 국제기구들이 논의해오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책과 철학들이 앙코르유적을 구제하기 위해 적용되기 시작했다.

2003년 파리선언에서는 앙코르유적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는 장기적인 보존을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구하고 있다. 2002년 부다페스트선언에서 다루어진 안전이 바로 캄보디아에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언에서는 문화유산 보호와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전술한 것과 같이 지역사회는 2000년대 후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에서 주요화두로 떠오른다. 2013년 앙코르선언에서는 이 지역사회대환 논의가 더욱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

Tab.6 앙코르유적의 보호와 국제적 동향의 관계

	국제적 동향	앙코르유적
1910	제1차 세계대전 (1914-1918)	Angkor Conservancy 설립(1908)
1920		초목 및 산란석재 정비 초보적인 보수작업 및 응급조치
1930	아테네헌장(1931)	아나스틸로시스도입 (1931)
1940	제2차 세계대전 (1939-1945)	1940년대 M. Glaize에 의한 본격적 수복작업
1950	헤이그협약(1954)	캄보디아 독립 (1954)
1960	베니스헌장(1964)	1960년대 B. P. Groslier에 의한 본격적 수복작업
1970	세계유산협약(1972)	킬링필드 (1975-1979)
1980	플로렌스헌장(1981)	Save Angkor 국제 캠페인(1992)
1990		도쿄선언(1993)
2000	부다페스트선언(2002)	파리선언(2003)
2010	지역사회강조(2007~)	앙코르선언(2013)

1993년 도쿄선언에서 논의되었던 앙코르유적 보호에 대한 논의는 앙코르유적이 놓여있던 특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03년의 파리선언과 2013년의 앙코르선언을 통해서 앙코르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의 주제가 특수성을 넘어 국제적 논의의 범주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앙코르유적 보호를 위한 흐름은 전반적으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동향과 함께 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70년대에 발생한 내전으로 일시적인 위기를 맞이하였지만, 국제사회

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앙코르유적의 보호는 다시 정상의 위치로 되돌아 왔다고 볼 수 있다.

6. 결 론

앙코르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세 개의 선언문은 각각이 채택될 당시 유적이 당면한 과제를 환기시키며, 앙코르유적의 보호에 유효하게 작용하였다. 또한, 세 번의 회의를 통해, 앙코르유적 보호를 위한 논의의 범주가 확대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1993년에 채택된 도쿄선언은 위기에 처한 앙코르유적을 구제하기 위한 활동의 시작을 의미하며,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 참여와 세계 각국의 경제적 기술적 협력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였다. 2003년에 채택된 파리선언에서는 도쿄선언이 채택된 이후, 위기에 처한 앙코르유적을 대상으로 한 구제가 충분한 성과를 내었다고 평가하는 첫 장소로서 의의를 가진다. 이 평가는 UNESCO가 지정한 '위기에 처한 세계유산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던 앙코르유적이 리스트에서 해제되는 결정으로 이어졌다. 2013년의 앙코르회의에서는 지난 20년간의 경험을 정리하여 '앙코르헌장'으로 선포하여 유사한 문화유산의 모범사례로 추천하기에 이른다.

또한, 100년의 역사를 가지는 앙코르유적 보호는 1970년대에 발생한 내전으로 위기를 맞이하였지만, 캄보디아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다시 정상의 위치로 되돌아 왔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세 선언은 유효하게 작용하였고, 앙코르유적 보호를 위한 논의의 범주가 점점 확대되어 왔다고 평가 할 수 있다.

References

1. Tokyo Declaration, Tokyo, 1993
2. Paris Declaration, Paris, 2003
3. Angkor Declaration, Siemreap, 2013
4. 20Year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CC-Angkor and UNESCO, 2013
5. Angkor Charter, UNESCO, 2012
6. CHOI Byung-Ha, Reconsideration of the Athens Charter,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Vol.21, No.4, 2012.8 (최병하, 「아테네헌장(1931)의 재고」, 『건축역사연구』, 제 21권 4호 통권 83호, 2012년 8월)
7. PARK Jin-Jea, 『A study on the Developmental

- Aspects and Operational Progress of the UNESCO World Heritage Convention』, a thesis for a doctorate, Sungkyunkwan University, 2012 (박진재, 『세계문화유산 제도의 전개 양상과 운영의 추이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12)
8. Monique van den Dries, Corijanne Slappendel, Sjoerd van der Linde, *Dutch Archaeology abroad : From treasure hunting to local community engagement*, European Archaeology Abroad, Sidestone, 2012
 9. *ICC 19th Plenary Session Activity Reports*, ICC-Angkor, 2011
 10. *35th World Heritage Committee*, UNESCO, 2011
 11. Miura, *World Heritage Making in Angkor*, 2011
 12. Ourng, Chanvoleak, *Modeling urban growth pattern for sustainable archaeological sites : a case study in Siem Reap, Cambodia*, WSEAS Press, 2011
 13. 박소현, 「문화유산 보존과 관련된 국제 현장의 흐름, 1931년의 아테네현장에서부터 2008년 문화루트현장에 이르기까지」, 『이코모스 현장 선언문집』,(사)이코모스 한국위원회, 2010
 14. Philippe DELANGHE, *Brief history of ICC-Angkor*, ICC-Angkor, UNESCO, 2010
 15. *34th World Heritage Committee, (WHC-10/34.COM/5D)*, UNESCO, 2010
 16. NAKAGAWA Takeshi, *Temple for Gods, BAYON*, JASA, 2009
 17. *ICC-Angkor*, UNESCO, 2009
 18. *General Population Census of Cambodia 2008 - Provisional population totals*,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Ministry of Planning of Cambodia. 2008
 19. Kirsch, *Management of Pilot Watershed Areas in Cambodia : Watershed Profile of the Stung Siem reap Watershed*, MRC-GTZ, 2008
 20. *31th World Heritage Committee*, UNESCO, 2007
 21. Catherine Clémentin-Ojha, Pierre-Yves Manguin, *A century in Asia : the history of the 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1898-2006*, EFEO, 2007
 22. *The study on integrated master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Siem Reap/Angkor Town in the Kingdom of Cambodia: final report (Vol1)*, JICA, 2006
 23. NAKAGAWA Takeshi, *The Master Plan for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the Bayon Complex*, JSA, 2005
 24. ユッカ・ヨキレット, 『建築遺産の保存, その歴史と現在、アルヒーフ』, 2005
 25. *28th World Heritage Committee, UNESCO*, 2004
 26. *Second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for the Safeguarding and the Development of Angkor*, UNESCO, Paris, 2003
 27. *26th World Heritage Committee, UNESCO*, 2002
 28. 松本修自, 「遺跡・建造物の保存修復 その理念と実践 (下) —ギリシャ・アクロポリスを中心として」, 『文建協通信』 No.59”, 文化財建造物保存技術協會, 2000
 29. Jukka Jokileto, *A History of Architectural Conservation*, Butterworth-Heinemann', 1999
 30. 이태녕, 도춘호, 「베니스 현장의 해설과 번역」, 『보존과학회지』, vol7, No.2, 1998
 31. Cambodia Royal Decree, *Establishing Protected Cultural Zones in the Siem Reap/Angkor Region and Guidelines for their Management*, 1994 (Royal Decree No.001 28, May, 1994)
 32. *Respons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afeguarding and development of Angkor*, UNESCO, 1993
 33. *Safeguarding and Development of Angkor*, UNESCO, 1993
 34. *Considerations for the conservation and presentation of the historic city of Angkor*, World Monuments Fund, 1992
 35. *16th World Heritage Committee, UNESCO*, 1992
 36. *Preservation of the Angkor monuments, "Records of the General Conference"*, UNESCO, 1991
 37. *Bulletin de l'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BEFEO 53/2, 1967
 38. *Save the treasures of Nubia*, The UNESCO Courier, UNESCO, 1960
 39. M.Glaize, *Les Monuments du Groupe D'Angkor*, Albert Portail, 1944
 40. *Bulletin de l'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BEFEO 16/5, 1916
- 접수(2013. 2. 14)
수정(1차: 2014. 6. 18)
게재확정(2014. 6. 21)